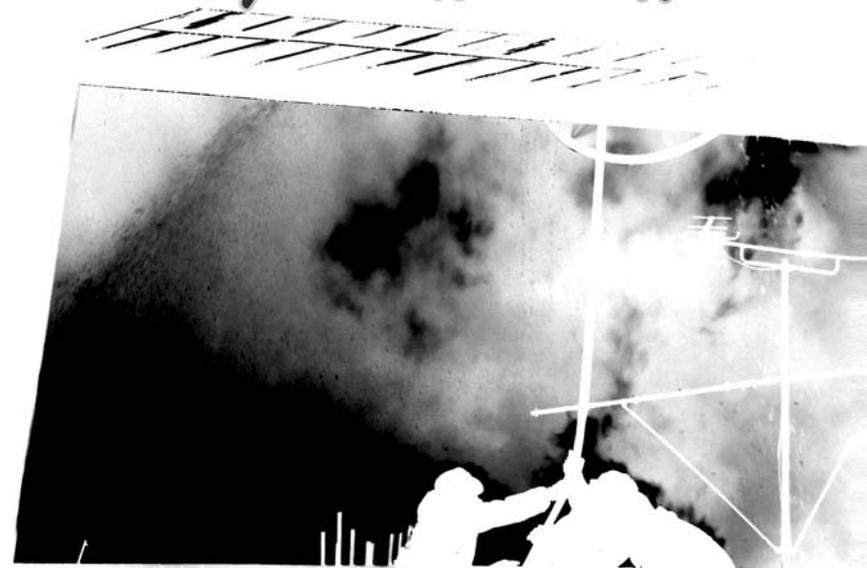


용산참사의 진실

여기, 사람이 있다



목차



- 용산참사, 1월 20일... 그리고 8개월의 투쟁 _ 4
- 용산참사 8개월 투쟁의 기록 _ 6
-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자! _ 8
- 서울시 개발정책의 문제 - 누가 그들을 망루에 오르게 했나? _ 11
- 국민법정으로 정의를 세우자 _ 13
- 생존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_ 17
- 용산 참사 다섯 유가족 이야기 _ 20

용산참사, 1월 20일... 그리고 8개월의 투쟁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에 의한 경찰의 살인진압 뿐만 아니라, 도시서민을 다 내쫓는 막가파 식 살인개발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용산 4구역의 개발 사업은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상 4년 정도가 걸린다는 사업 시행인가 기간이 조합 설립 이후 고작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발이득에만 혈안이 된 건설자본(삼성, 포스코, 대림)과 재개발 지주조합, 그리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용산구청은 세입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철거 직전인 2008년 7월에야 터무니없는 보상비(상가세입자 평균 2,500만원)를 통보하며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비용역 업체라고 하는 일명 '철거깡패' 들은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 몰아내기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을 협박하고, 장사하는 가게 앞에 동물사체를 놓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등 온갖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개발로 인해 상가세입자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금의 문제, 단골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온 관계가 해체되는 문제, 지역의 성격이 바뀌면서 재입주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업종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즉,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계 자체가 심각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막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절차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약한 법적 장치마저도 철거현장에서는 쉽사리 무시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더욱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철거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담은 이들에게 말을 하고자 '망루' 를 짓고, 올라간 것입니다. 통상 철거민들이 망루투쟁을 시작하면,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를 버티면서, 개발조합과 협상을 하거나, 경찰에 의해 진압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용산참사가 발행한 용산 4구역은, 1월 19일 망루를 짓자마자 경찰이 투입되더니, 하루만인 20일 새벽, 경찰특공대를 통해 살인진압을 감행하였습니다. 진압과정에서 경찰 한명과 철거민 다섯 분이 돌아가셨고, 철거민들의 시신은 유족들의 동의 없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강제 부검되었으며, 생존한 철거민들은 경찰을 죽인 살인자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은 수사기록 3천 쪽을 은폐하여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은 진상규명은 커녕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모르쇠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억울한 한을 풀어드리지 못하여,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8개월 투쟁의 기록



▲ 지난 1월 20일 용산 남일당 현장에서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한 참사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생존권을 주장하는 철거민 투쟁에 대해 유례없는 강경진압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철거민 5명, 경찰관 1명 사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 참사 발생 당일 범대위가 구성되었고 1월 20일 저녁 분노한 시민들이 용산으로 모여들었다. 범대위는 1월 24일 범국민추모대회를 열어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뉴타운, 재개발 중단! 이명박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하였다.



▲ 검찰은 예정된 각본대로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짜맞추기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범대위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이는 무산되었다. 검찰은 수사기록 3천쪽마저 은폐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가며, 용산 참사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 2월 11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대표자 시국농성을, 그리고 4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참사현장에서 유가족과 대표자들의 농성이 진행 중에 있다.



▲ 용산참사 6개월, 시신을 천구(遷柩) 하여, 시청앞 분향소를 치리려 했으나, 경찰은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고, 폭력으로 저지하였다.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3보 1배, 1인 시위 마저도, 경찰은 두세검으로 에워싸고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다.



▲ 9월 8일, 순천향병원 영안실을 정리하고, 수배중인 공집장들은 명동성당으로, 유가족들은 용산참사 현장으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투쟁의 의미를 다졌다.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자!

추석 전 승리를 위해 이렇게 투쟁합시다

추석 전에 승리하자!

용산참사 발생 8개월! 지난 설 명절 직전 이명박 정권의 경찰특공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다섯 열사의 영령이 추석명절까지 구천을 떠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추석명절 전에는 반드시 열사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결의로 유가족과 용산범대위의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울 도심으로!

8월29일부터 수개월 만에 다시 서울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명박정권은 5000명의 경찰을 서울광장, 광화문 일대에 개미떼처럼 깔아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1일까지 기도회, 삼보일배, 촛불추모제 형식으로 분향소 설치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폭력경찰은 이런 형태의 행사마저 무조건 연행으로 탄압했습니다. 3일간 47명이 연행되었습니다. '용산'의 '용' 자만 꺼내면 가장 온건한 행동인 삼보일배조차도 경찰폭행과 무차별 연행을 각오해야 하는 고강도 투쟁이 되고 맙니다. 9월 9일 새로 만든 광화문 공원에서 50인 1인 시위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병력 1500 여명을 동원해 무고한 시민의 발길을 막고 1인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을 두 세 겹으로 에워쌌지만 이 투쟁은 9월 11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용산 참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권은 수도 서울을 계엄과 같은 상태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권의 태도가 용산참사의 본질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투쟁거점 강화!

수배당하여 순천향병원에 8개월 가까이 갇혀 있던 이종희,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철연 의장이 경찰의 철통같은 경계망을 뚫고 명동성당으로 들어가 투쟁거점을 형성했습니다. 이어 유가족들은 순천향병원 영안실을 정리하고 용산참사 현장으로 옮겨 양희성 열사가

운영하던 삼호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사현장의 투쟁동력을 강화하고, 건설재벌과 용역깡패가 강행하는 용산 4지구 철거에 대한 대항력을 한층 높인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이명박 정권의 편이 아니라 유가족과 용산범대위의 편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가만 두면 제풀에 지쳐 떨어질 것'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오판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순회촛불추모제 : 전국적 대중투쟁 동력의 확대강화!

8월에 이어 9월 14일부터 전국순회 촛불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전국 15개 도시에서 낮 시간 거리선전과 저녁 촛불추모제를 개최하고 전국곳곳에서 용산참사 해결의 목소리를 확대 강화할 것입니다.

9.26 범국민추모대회 및 각계각층 공동행동

전국순회 촛불추모제의 성과를 결집하여 9월 26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전후로 4대종단이 시국 기도회, 법회, 미사를 연이어 개최하고, 교수·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의 용산참사 해결촉구를 위한 행동이 9월말까지 이어지는 등 각계각층이 궐기하여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

이명박 정권은 책임지고 사과하라!

이명박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 수용하라!

야4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안 수용 의사를 밝히고, 집권여당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 수립하라!

용산 4구역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상가 및 임시상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거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 보장과 주거이전비 보장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가족, 부상자에 대해 배상하라!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충분한 배·보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에 의해서 강제로 안치된 장례식장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용산참사 부상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병원비 일체, 상당 기간의 생계대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속자석방, 수배해제, 검찰수사기록 3000쪽 공개!

전철원 회원, 범대위 관계자 등 구속, 수배를 해제해야 합니다. 검찰이 은닉하고 있는 수사기록 3000쪽을 즉각 공개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 개발정책의 문제 - 누가 그들을 망루에 오르게 했나?

용산 철거민들이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울시를 고품격, 명품도시로 만든다며, 개발지역 주민들을 용역깡패의 폭력과 죽음으로 내몬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책없는 개발정책에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감도. 665m의 랜드마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용산을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하고자하는 거대한 개발계획을 속도전으로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만 35개 뉴타운, 299개 재개발, 266개의 재건축 구역이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어 소형, 저가의 주택과 상가 등 도시서민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개발한 서울시 면적의 2배에 이르는 면적의 개발을 뉴타운·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년 안에 밀어붙이려고, 서울시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망루에 오르고 있어,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용산참사 책임회피

그럼에도 살인개발의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은 유족 및 범대위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한 채 대안을 모색하는 척, 언론플레이만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시 부시장은 용산4구역에 재계된 살인철거의 중단을 요구하자, “시간은 돈이다.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말로, 유족과 철거민들을 다시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가 용산참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은,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등등의 서울시 개발 수식어인 문화와 생태, 디자인으로 걸 포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 이면에는 불도저식 막개발의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대책없는 서울시 재개발 보완 대책

최근 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 등 재개발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시 세입자들의 주거·생존권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시 대책은 살고 싶다고 외치는 세입자들을 '떼잡이'라며 외면하던, 박장규 용산구청장이 '공공관리자' 랍시고, 더욱더 개발이익 창출에 동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돌아가신 철거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보상금 몇 푼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와 영업의 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및 재정착대책, 특히 상가세입자들에게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는 임시시장(상가)과 개발 후 임대상가를 통해 장사하던 곳에서 계속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박한 생존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개발보다 인간이다.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재개발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경기 활성화는 건설재벌의 배불리기요, 용역깡패의 일자리 보장일 뿐입니다.

이는 개발보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도시서민 다 내 쫓는 무분별한 개발을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 5mb. 오세훈의 개발주의가 이명박과 다르지 않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오 시장은 뉴타운 50개 지정을 공약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지금이라도 이들은 돌아가신 철거민 열사들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용산을 찾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법정으로 정의를 세우자

진압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용산 '남일당' 건물의 화마 속에서 살아나온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화마 속에서 철거민 다섯 분이 돌아가셨고, 6명의 철거민이 구속되었고, 15명의 철거민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진압작전을 펼친 경찰은? 한 명이 그 화마 속에서 숨졌고,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진압작전에 나섰던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은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철거민만 죄가 있으며, 그들이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인해서 동료 철거민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아버지인 이상립 열사마저 죽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돌아가신 열사들은 자살특공대이며, 철거민들은 동료철거민을 살해한 살인마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땅루에 오른 철거민들의 참혹한 죽음은 명백히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은 살인에 이르게 한 강제진압의 당사자인 경찰, 그리고 준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대테러진압부대인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게 한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1980년 광주의 학살 이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최대 규모의 살인이 자행되었지만 이 책임을 모두 철거민에게 뒤집어씌운 검찰의 수사결과를 가지고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검찰은 편파수사, 왜곡수사, 은폐수사로 철거민들에게만 혐의를 뒤집어씌우더니 재판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봉쇄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집중심리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그런 검찰은 다시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파행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검찰 수사기록 3천 쪽

검찰은 애초에 1만여 쪽의 수사기록 중 3천여 쪽의 기록(추가 제출한 자료 5백여 쪽을 빼면 실체는 2천5백여 쪽)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해줄 것과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5월 14일 재판부기피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 다시 항고, 기각, 대법원에 재항고, 기각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기피신청 기각 결정이 난 7월 10일까지 재판은 중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검찰은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 용산참사 유가족이 검찰청 로비를 점거하고 3000쪽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다시 변론거부를 하고 퇴정했으며, 피고인들은 재판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재판부를 등지고 돌아앉았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변호인을 사임하고 말았으며, 재판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역시 검찰 수사기록의 제출을 촉구해갈 것입니다. 수사기록 3천 쪽은 검찰과 경찰, 이명박 정권의 판도라 상자가 될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기록 3천 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검찰은 한사코 제출하지 않을까

요? 첫째는 경찰 지휘라인, 즉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차장, 특공대장, 용산경찰서장 등 핵심 지휘라인의 진술입니다. 이들의 진술에는 용산참사의 원인이 된 강제진압 작전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들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이미 일부 제출된 수사기록에서 나타나듯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반하는 특공대원이나 철거용역업체 직원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망루 진압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화염병이나 유기용제가 적재되어 있는 사실도 모른 채 투입되었으며, 참사 전날인 19일 상황이 검찰이 말하는 것과 달리 평온한 상황이어서 다급하게 진압작전을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등의 진술이 있습니다. 셋째, 철거용역업체가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뇌물 내역에 대한 것들입니다. 검찰은 철거용역업체가 경찰과 합동으로 진압작전에 나섰다는 것을 부인하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고서야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철거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결국 철거용역업체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제출된다면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나 건설업체, 철거용역업체 등의 범죄들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수사기록의 제출 없이 진행되는 재판은 이미 불공정한 재판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기소하고, 심판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편파, 왜곡, 은폐수사로 일관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재판을 통해 철거민들에게만 유죄가 판결나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는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을 고민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법정에서는 가해자인 경찰, 검찰을 비롯해서 용산구청, 서울시, 정부관계자, 철거용역업체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하여 그 죄를 묻고자 합니다. 국민이 기소인이 되고, 배심원이 되고, 재판부가 되어서 과연 용산참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들만이 아니라 건설업자들과 땅투기꾼들을

생존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가을은 없는 사람 희생으로 가진 사람 더욱 살찌는 계절?

이명박 대통령이 또 재래시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서민을 위한 정치' 라는 TV쇼를 위해 떡볶이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11년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한 식료품가격에 동요하는 민심에 놀라 남대문시장에 들른 것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올 들어 9.5%나 오르면서 앵겔계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생고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 이랍니다.



정부는 금융위기, 경제위기, 공황이라고 해서 뿌리부터 흔들리는 은행과 재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상반기에만 하루하루 생계 걱정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인 130조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은행금리를 낮춘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화근이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보니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무엇이 좋아졌는지 체감조차 되지 않지만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를 했다고 하고 이후 내년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은행과 재벌 살린다고 기본적인 식료품값까지 올려버려서 없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든 격입니다. OECD 전체로 따져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7%나 차지하고, 식품물가는 OECD 국가 중에서 파산 선언으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재개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입법부, 행정부의 문제도 짚을 것입니다. 전세대란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지금도 강제철거로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진단해보자는 것입니다.

1만 명의 국민들이 기소인으로 참여하고, 50명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9명의 재판부로 구성되는 재판은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에 기소인으로 참여하여, 역사적인 사건의 증인이 되고, 심판자가 됩시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어나라!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용산철거민사망사건의 책임자를 심판한다!

2009년 10월 18일(일) 오후 1시

용산 국민법정

CSB 천성관 전 서울지방법장	CSM 오세훈 전 서울시장	LMB 이명박 전 대통령	PJR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	ISL 김석기 전 서울지방검찰청장	윤석열 김석재 정기태 조영 조환, 건설사, 용역업체
----------------------------	--------------------------	-------------------------	---------------------------	------------------------------	--

※ 장소는 추후에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용산국민법정 준비위원회
홈페이지 <http://mbout.jinbo.net/court> | 이메일 court@jinbo.net

받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습니다.

그 뿐입니까? 은행이자 낮으니 시중에 풀린 돈이 마땅히 갈 곳이 없게 되자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어 집값이 경제위기 이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놔야 물가 오르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당연히 월세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정이 좀 나은 사람은 비싼 전세 구할 바에야 은행에 용자를 내든 어떻게 하든 얼마 더 보태서 집을 산다고 덤비다보니 집값은 더 오르고, 그나마 융통도 어려운 사람들은 월세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는데도 공급이 모자란다고 그린벨트 풀어 3~4억의 싼 값(!)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거품은 한정 없이 부풀어 갑니다. 부풀어가는 부동산 거품에 올라타기 위해서 경기침체로 죽어 있던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4대강을 살린다는 명분아래 20조가 넘는 돈을 풀고 더불어 하천 주변 개발사업까지 허용한다고 하고, 은행 이자율을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하니 없는 사람들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있는 사람들 20조원 이상 세금을 감해주듯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지출을 비롯한 사회적 안전망은 확대되어야 당연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년 예산요구안에 담긴 복지지출액은 82.1조원으로 액수로는 1.7조원 증가하지만, 증가율로는 2.1%에 불과해서 내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삭감된 것입니다.

용산 투쟁으로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정책에 맞서자

이명박 정권에게 '서민'은 정치적 수사일 뿐, 용산의 철거민에게 그러했듯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무참하게 진압하는 '적'에 다름없습니다. 결국

반민생, 반민주, 반인권적인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것은 인간다운 생존을 위함이고, 사람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용산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건설재벌과 투기집단의 천문학적 이익의 이면에 영세세입자철거민의 억울한 처지는 결국 억울한 죽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경찰과 검찰이 강제진압과 사건은폐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 정부의 이렇다 할 사과조차 없는 상황은, 곧 이 땅의 가난한 민중들에게 이명박 정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투쟁은 억울한 넋을 기리는 우리의 추모의 방식이자, 반 민중 정책과 무자비한 폭력에 죽어가는 이 땅의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용산참사 해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함께 나섭시다.



용산 참사 다섯 유가족 이야기

지난 9월 9일, 일곱 달 넘게 주인을 잃은 채 문이 잠겨 있던 삼호복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이 오랜 영안실 생활을 정리하고 용산참사 현장으로 온 것입니다. 삼호복집은 고 양희성 열사가 생전에 운영하던 곳입니다. 참혹한 사건으로 졸지에 가족을 잃고 공동생활을 해온지 세 계절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는 냉동실에 꽂꽂 얼어붙어 있는 가족을 그대로 둘 수 없기에, 모든 걸 내걸고 싸우기 위해 열사들의 원혼이 서린 용산 참사 현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간은 1월 20일 새벽에 멈춰져 있는 것만 같은데, 계절은 바뀌고 고 이상림, 양희성, 이성수, 한대성, 윤용현 다섯 열사들의 가족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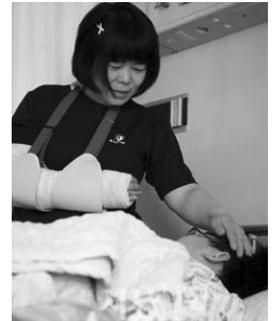
지난 1월 20일 용산에서 목숨을 잃은 이상림 열사의 손자 동원이는 겨울방학 때부터 순천향 대학병원 영안실이 집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새학기를 그 곳에서 시작했고 여름방학을 그곳에서 보내고 2학기를 맞았습니다. 윤용현 열사의 작은 아들 상필이와 이성수 열사의 작은 아들 상현이도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창 사춘기라 예민할 시기에 할머니, 아버지, 작은 엄마랑 24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지낸 7개월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게다가 다른 네 열사들의 가족들과 전철원 식구들까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살았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여전히 함께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 삼호복집으로 이사한 다음날 참사현장인 남일당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상식을 올리고 절하는 유가족

태어날 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던 상필이는 지난 5월 서울대학병원에서 다른 한쪽 눈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느라 학교도 두 달 가까이 가지 못했던 탓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매일 용산참사현장 생명평화미사에서 봉헌초를 판매하며 봉사하시던 모니카 자매님의 따님이 상필이, 동원이의 무료과외선생님을 자청해 일주일에 세 번씩 방문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아이들은 저녁에 TV를 보는 대신 문제집을 꺼내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족 늘어났습니다.



▲ 고 윤용현 열사의 부인 유영숙 씨가 참사 충격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아들 상필이를 간호하고 있다.

현장에서 용역직원들이나 경찰과의 충돌로 만신창이가 된 어머님들이 들어오시면 "힘들었지 할머니, 식사하셨어요?"라며 어른스레 위로를 하는 동원이와 어찌다가 어머님들끼리 말다툼이라도 하면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그만하시고 참으세요"하고 나지막이 한마디 건네는 상필이...



▲ 순천향병원에서 상식을 올리는 종원 씨

그 참혹한 일을 겪은 후,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고 담벼락 같은 이 정권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일식집을 운영하셨고 참사 직전까지 삼호복집을 운영하시던 고 양희성 열사의 두 아들 종원 씨와 종민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일식 조리사를 꿈꾸던 두 형제는 6개월 넘게 칼을 잡지 않아 손이 굳어간다고 걱정을 하던 중 외삼촌의 소개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용산참사 이후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했고 다큐멘터리 영화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서도 '주연'을 맡았던 정영신씨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서울구치소에 있는 남편, 이충연 용산 4상공철대위 위원장의 면회를 가고 남일당 현장과 순천향대학병원 영안실을 오가느라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시아버지를 잃고 매일 피약벌 아래 파라솔 하나 의지해서 매일 농성중인 시어머니를 지켜보는 일, 7개월 넘게 용산참사 때 다친 다리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아서 여전히 목발을 짚고 면회실로 나오는 남편을 매일 마주하는 일, 은행대출을 받고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꾸민 그녀의 희망, '호프집 레아'가 '갤러리 레아'로 '촛불방송국'으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보는 일도 그녀에게 마음 편한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매일 벌어지는 경찰의 폭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몸이 성할 날이 없다. 용산참사 6개월(7월 20일) 추모대회 직후 경찰에 고립된 유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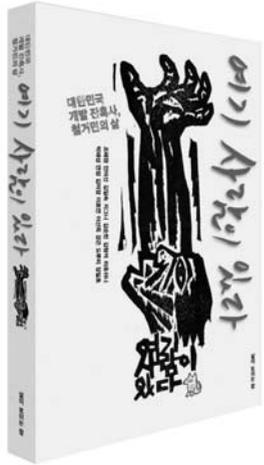
순천향병원 영안실에는 이들 말고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을 목 터져라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7개월째 땅바닥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순천향대학병원 영안실 4층에서 '공중생활'을 하던 수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명동성당으로 거처를 옮겨 성당 안을 거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적' 이랍니다. 7개월 동안 영안실 1층 로비와 4층 통로에서 은박지 한 장 깔고 밤낮없이 2교대로 규찰을 서왔던 전철원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일을 뒤로 하고 8개월간 용산으로, 순천향병원으로 출퇴근해 세끼 밥을 먹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일당 용산참사 현장에는 생계의 터전이 하루 아침에 철거되어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용산 4구역 세입자들이 있고 매일 유가족과 철거민을 위로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사제들도 있습

니다. 8개월이 다 되도록 매일 촛불을 들고 용산참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 땅의 양심들이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 시민들이 함께 행동에 나서고, 철거민들은 전례 없는 많은 단체, 개인들의 연대와 지지를 경험했습니다.

용산참사는 비극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함께 눈물 흘리고 무자비한 경찰 폭력과 탄압 속에서도 아픔과 분노를 함께 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수배자가 되어버리고 구속되어 버린 사람들, 생계도 포기한 채 집안일도 돌보지 못하고 용산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여태까지 상복을 못 벗고 살아가야 하는 유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그들의 정당함과 죄 없음을 밝히기 위해 거리를 선택하고 공권력과 싸우다가 팔이 부러지고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수모를 당해도 눈물마저 말라버려 흘릴 눈물도 남지 않은 다섯 어머니들은 당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용산참사현장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투쟁의 공간으로, 거리로 나올 것이지만, 여전히 순천향병원 영안실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안실 냉동고에는 꿈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소박한 바람들을 꼭 막힌 이 세상에 호소하려다 눈도 못 감고 세상을 떠난 다섯 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살고 싶다'는 말조차 이제 더는 할 수 없는 주검이 되어 그 춥고 뜨거운 망루에서 내려온 다섯 열사들의 원혼을 이대로 구천에 떠돌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개발 잔혹사, 철거민의 삶 “여기 사람이 있다”

개발에 저항한 난장이들의 삶, 일상,
투쟁을 받아 적다

* 판매가 : 용산참사 현장 판매 및
단체 주문 1만원
(서점가 1만3천원)

DVD 2009 인권영화제 개막작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두번째 이야기]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2009년 1월 대한민국 수도서울 용산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으로, 떠날 수 없는,
남겨진 이들의 삶을 담았다.

* 상영시간 : 60분 * 판매가 : 1만원
* 구입문의 : 용산범대위 02) 795-1444 mbout@jinbo.net